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이·취임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7일 신임 임경종 본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임 본부장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구)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장, 인천지원장, (구)농림수산물검역본부 축산물안전과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이주호 전 본부장의 이임식이 지난 6일 진행되었다.



▲ 신임 임경종 본부장



원으로 닭고기 소비홍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6월 3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선거를 개최키로 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안영기 위원장 재선출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대전에서 2015년 제2차 계란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리위원장 선거에서는 현 안영기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재선출되어 향후 2년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를 더 이끌게 되었다. 한편, 대의원회 의장에는 남기훈 대의원이, 부의장에는 최광일 대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허준무, 이순기 대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 안영기 위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SI 차단방역 조치 새롭게 시작해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중국, 대만, 캐나다에서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2가 지난해 12월 미국 서부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2014년 4월 5일 미네소타를 거쳐 올해 4월 23일 가금산업의 본고장인 아이오와에서 추가 발생(총 12개주 50개 지역 발생)됨에 따라 미국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2014. 12. 18.)시 미국산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을 금지(2014. 12. 20.) 하였고, 이번 미국 내 H5N2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해당국가 여행객 휴대품 검색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 철새도래지 및 주변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 하였다. 검역본부는 국내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내외·주변에 대한 소독 조치와 농장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철새 등 야생조류의 접근을 막기 위한 그물망 점검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2015년도 제1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예산안은 총 37억원(거출율 80% 기준, 농가거출율 19억 8천만원, 정부지원금 17억 2천만

가축질병 진단능력 향상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 3월부터 4월에 걸쳐 시·도 및 민간 질병진단기관의 진단능력 평가를 위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시·도 방역기관 43개소와 민간 진단기관 10개소 등 총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올해 검사 대상 항목은 결핵병 감마인터페론검사, 돼지유행성설사 유전자검사, 가금티푸스 감별 유전자검사, 뉴캐슬병 혈구응집억제반응, 병리조직검사 등 총 5개 항목이었다. 정도관리 결과를 취합·분석한 결과 충남가축위생연구소(5개 항목 모두 100점)와 읍티팜 동물임상평가센터(3개 항목 모두 100점)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부적합률은 2013년 6.9%에서 2014년 4.2%, 2015년 3.0%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진단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예방통제센터』 업무 설명회 개최



검역본부는 지난 4월 30일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동 3층 회의실에서 AI 사전 예방 및 조기 종식을 목표로 신설된 AI 예방통제센터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축산전문 기자단을 초청하여 AI 예방통제센터의 비전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소개하고 AI 방역업무와 관련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하였다. 축산전문 기자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AI 예방통제센터의 현장중심의 방역 추진 상황을 설명 받은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신설조직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역사업 추진과 현장과의 소통을 주문하였다.

한·일 동물질병 진단기술 세미나 개최



검역본부는 지난 7일 한·일 진단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과 일본의 동물질병 진단실적과 현안 문제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와 일본동물위생연구소는 2007년부터 MOU를 체결하여 양국간 주요 질병 진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한국과 일본은 질병 발생 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 관심 질병에 대한 진단과 방역대책 등을 공유하여 양축 농가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동물위생연구소와 국내기관의 진단 분야 전문가 4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4년도 동물질병 진단실적을 공유하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교육 실시



검역본부는 지난 12일 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축산물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전국의 시·도 축산물시험검사기관에서는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143종에 대하여 연간 약 20만 건의 잔류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해마다 직전 해의 검사실적을 분석하여 국내산 생산단계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계획

를 수립하고, 신규물질의 검사방법 등에 대한 검사 교육을 통해 전국 시·도 검사기관에서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 국내산 식육 잔류물질 검사결과 발표

검역본부는 지난 15일 2014년 국내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실적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축산물시험검사기관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및 말고기를 대상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 143종에 대하여 국내산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약 20만건 수행하였다. 전체 검사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모니터링 검사에서는 약 16만건 중 약 0.10%에 해당하는 150건만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나 생산단계에서의 잔류물질관리가 양호하였으며, 또한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6개월간 출하 시 규제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하도록 특별관리하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연구 100년 대계 기원 제막식과 축훈제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8일 축산시험연구 과정에서 희

생된 가축들의 넋을 기리고 새로운 축산연구 100년의 계획을 준비하는 축훈제와 제막식을 열었다.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혁신도시 농업생명연구단지) 축훈제 앞에서 마련된 이 행사는 새 청사로 이전한 과정에 대한 설명과 축훈사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축훈제 앞에는 가축들이 좋아하는 배추와 무, 사료, 마른풀(건초)과 대추, 밤, 배, 사과, 꽃감, 당근 등으로 제사를 마련하였으며 축훈사는 '가축질병으로 축산업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땅에 축산업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축산기술 전수받은 코모로, 닭 인공부화 첫 성공!



우리나라 축산기술을 전수받은 아프리카 코모로(Comoros)에서 닭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이하 KAFACI)' 회원 나라인 코모로에 닭 부화 기술을 전수한 결과, 올해 4월 자체 기술로 병아리 인공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KAFACI 사업 중 축산분야에서 처음 수행되는 것으로, 코모로에 부화장 운영 기술을 전하고 나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병아리를 생산,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코모로는 외국으로부터 원조 받은 작은 규모의 부화기가 있었으나 그동안 따로 기술을 전수받지 못해 방치돼 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3년 9월부터 2개월간 코모로 현지인(모하메드 요세프(31), 부통령실 농업전략국 소속)에게 기술을 전하고, 지난해 말에는 전문가 3명이 현지를 찾아 기술을 지도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6일 첫 번

째 닭 인공부화에 성공해 실용닭으로 사용될 병아리 143마리가 태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 12개국 초청 식품안전관리인증 기법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아시아 지역 축산물 및 식품안전 정책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아세안 위생협력 세미나'를 식약처(충북 오송 소재)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등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을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였으며 아세안 8개 회원국과 OECD 원조대상 4개국 등 총 12개국의 축산물 및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 25명이 참가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제4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김진만 신임원장 취임식 가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

은 지난 4월 23일 본원 8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만 신임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진만 원장은 지난 2004년 건국대학교 축산식품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한국유산균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친환경농산물인증 센터장, 축산물수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식품안전의 날 국무총리 표창(식품안전 분야)를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축산물위생관리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 등을 수상한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 전문가이다.

한국토종닭협회

산닭 판매점 방역 실태 일제 점검 추진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근호, 이하 토종닭협회)는 시·도 농식품 및 정부의 방역정책에 의거하고 전통시장 등 산닭 판매점의 방역 실태 점검을 위해 지난 3월 초 토종닭협회 회장 및 상임부회장과 농가분과, 산닭유통분과 위원장, 각 지회장 총 16명은 농식품부로부터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을 위촉 받았다. 이에 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 정태영을 중심으로 지난 3월 말부터 전통시장 등 산닭 판매점과 유통차량, 생잔반 급여 농장 등에 대한 차단방역 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사항으로는 산닭 판매점에서 가금에게 생 잔반 급여 여부, 방역 및 위생 상태, 소독 실시기록부 및 가축거래기록부 작성 여부, 토종닭 외 타 가금류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